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독일 어느 대학에 한 노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구사하시는 언어가 10개는 족히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유창한 히브리어까지 구사하는 사실에는 신학을 전공하는 자들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 교수님이 구약시대 언어인 히브리어를 할 수 있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세계대전 당시, 교수님께서 아직 이 대학의 학생이었던 시절, 교수님께서는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유대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기 전부터 그 둘은 사이좋은 친구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그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두어 시간 지나칠 때쯤 해선, 늘 무슨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 외는 것이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히브리어로 외는 그 시를 알아들을 턱이 없었던 교수님은 마치 음악같이 리듬을 타는 그 시가 무척 신기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에 있는 유명한 다윗의 시, 시편 23편이라 했습니다. 친구는 그것을 외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져 공부가 더 잘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교수님도 친구에게 배워서 그걸 같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처음 들는 히브리어가 좀 낯설었지만 리듬이 아름다워 금방 익숙해졌다. 그렇게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사이좋은 두 친구는 공부하다 지겨워질 때쯤 해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쳐댔다. 불행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나치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던 친구에게서, 어느 날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치 비밀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고....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의 페달을 밟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인사 한마디 나눌 틈도 없이 친구와 그 가족들을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친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친구의 얼굴은, 뜻밖에도 싱긋이 웃는 얼굴이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지며 외고 있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은 평온한 얼굴 미소 띤 모습으로, 친구는 시편을 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기억들과 알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친구의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의 패색은 짙어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러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다른 전쟁포로들과 같이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여 걸으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광고면으로 계속)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2월 17일
☎520-9464/021-292-1639.☒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은밀한 배품

내가 십대였을 때,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우리 앞에 서있는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열두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여덟 명이나 되는 대식구였고 가난한 가정임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그 날밤 구경하게 될 어릿광대랑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곡예들에 대해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어린이표 여덟 장과 어른표 두 장이요."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다."방금 얼마라고 했소?"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순 없는 일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 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혹스런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 준 도움의 손길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20달러 지폐를 꼭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맙습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요."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곧 표를 사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못 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좋은생각 中에서-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14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시 13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95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윤한나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2:1-7(신89)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ouple's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누가와의 여행" -예수님의 탄생-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93'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안내
3일	송정섭	정덕수	이광희, 이재영	윤형권, 박정자
10일	신경화	정희자	이종길, 이종운	이종길, 송정남
17일	윤한나	최기향	정덕수, 최윤호	이광희, 정덕수
24일	윤형권	최윤호	최재학, 김영길	이기중, 정희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12:00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12시

교 회 소 식

- 2002년 교회생활 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 엡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월 실천사항:
- "약속의 아비": 남자 성도들의 모임인 '약속의 아비' 성경공부와 기도회
*화요일(19일) 저녁 7:30. *장소: 교회(본당 안 주일학교실)
- 제2여선교회 월례회
*일시: 금요일(22일). 낮 12시 *장소: 청기와 식당(강촌 위)
- 교우소식
*윤형권 집사: 호주 방문중



*권용일, 이지영 집사 부부의 가슴설렘던 어느 해의 2월 21일, 축하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2월의 교회력>

	교회력	모임 및 행사	기념일
27/1	1월 이삭줍기		
3일		구역예배(8일)	
10일	사순절 시작(13일)	설날 식사친교(제2 여선교회)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2일)	
17일		여선교회(22일) '약속의 아비' 성경공부(19)	K&L(1) 결혼기념일(21)
24일	'이삭줍기' 봉헌	신임집사 세미나(28일)	P&L(2) 이민기념일(28)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서 계속)
가운데,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와서 자리에 섰을 때, 교수님은 총을 겨누는 군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며 외던 시편 23편을 조용히 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기 시작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